

목장교회 나눔지

2019. 5. 3.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10분)

· 가족이 사이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진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과 경배(5분)

찬
송
가
4
1
5
장

1. 십자가 그늘 아래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향할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 곳 찾았네
2. 내 눈을 밝히면서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볼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3.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찬
송
가
4
4
9
장

1. 예수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4.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
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0분)

요한복음 21장 15-23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A.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15.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

설
교
내
용

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아멘.

B. 말씀요약

주님이다라는 말은 주인이시다는 것을 말한다.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그 명령은 하인이 순종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오늘 주님이심을 고백했으나 실패한 사람을 성경은 조명하고 계신다.

모닥불이 피어져 있다. 우리는 모닥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어떤 모습이나하면, 패배한 자화상이 떠오르는 것이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 없다'라고 재차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과 눈맞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 지기 위해 끌려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 채 하는 베드로에게 아무의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배신의 현장'에 초대하신다. 이것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에게 양갈음을 하려 함도, 제자에게 창피함을 알게 해 주시려는 것도 아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과 다시 일어섬을 주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타박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아무 차이가 없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 채 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가보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음식이 구워지고 있는 모닥불 앞으로 대면하신다. 모닥불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에게는 피하고 싶은 환경, 아픔이 있는 곳, 창피함과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은 물으신다. "너 나를 사랑하니?"

사실 주님은 이 물음을 통해 베드로의 심종을 살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너 나 사랑하니"가 아니라, "너 나를 배신할 때 정말 무엇이 라고 하고 싶었니, 너 정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했니"라고 물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 나 사랑한다고, 너 나를 안다고, 나는 주님 곁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음을 앞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이제 가차 없이 비방하고 야단을 맞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비단 베드로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를 때 받았던 유익과 은혜를 가지고서도 뒤돌아서서 온갖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베드로와 우리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세상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했지만 본래 해야 할 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는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위협과 배신의 길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날의 모닥불을 기억할 때, 예전과 같은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거듭할 수 없었다. 그는 훗날 3천 명을 회개시키는 자가 된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에 노출된 자로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염려하는 자, 깨어있지 않았던 자, 넘어졌던 자, 믿음에 굳건하지 못했으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한다.

실패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과오를 회복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과 어떤 결단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게도 주님이 주인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 주님을 만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이 곳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나
가
며
제
문

나 답 1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라는 말씀은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나 답 2	예수님께서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양을 먹이라 말씀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 답 3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어떤 수준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

- 담임목사님의 영육의 회복과 재충전, 새 비전과 확신가운데 거하시도록.
- 봄맞이 대심방을 위하여
- 육신과 영적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 김낙기안수집사 : 평안과 영육의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 주시도록.
- 박태식집사 : 콩팥과 허리의 치유와 고통의 회복을 주시도록.
- 정기현권사 :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

[교회 광고]

- ① 큐티 동역자 100명 세우기 II 올 한 해 100명의 큐티동역자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모든 목장에서는 큐티를 구입하여 나누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목원들을 가입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매일 새벽 묵상시 1-2줄 답글을 달아 서로 독려하는 일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봄맞이대심방 II 모든 목장이 힘써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부부세미나 II 부부세미나가 12일(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주시고, 특히 젊은 부부 가정 자녀 돌보는 일(유치부실)에 섬길 수 있는 분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 - 주기도문

[목장별 사역메모]